**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**

**7/21 월**

**행 13:32-33**
**32** 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.
**33** 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.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. ‘너는 내 아들이다.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.’

**행 3:13** 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,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.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,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.

**요 1:18** 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,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.

**요 3:16** 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.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**요 17:5** 아버지,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.

**눅 24:26** 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”라고 하시고,

**요일 3:1** 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,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.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.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.

**7/22 화**

**시 2:6-12 (7-8)**
**6** “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.” 하시리라.
**7** 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. “너는 내 아들이다.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.
**8** 나에게 구하여라. 내가 민족들을 너의 유업으로 주고 땅의 끝까지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.
**9** 너는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깨뜨리리라.”
**10** 그러니 이제 현명해져라, 왕들이여, 경고를 받아들여라, 땅의 재판관들이여.
**11** 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떨리는 마음으로 기뻐하여라.
**12** 아들께 입 맞추어라. 그러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니 그분의 진노가 느닷없이 불붙기 때문이다.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.

**히 1:6** 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“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.”라고 말씀하십니다.

**7/23 수**

**벧전 1:3** 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.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,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

**히 2:10, 11-18**
**10** 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,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.
**11** 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,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,
**12** “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,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”라고 말씀하셨으며,
**13** 또 “나는 그분을 의지하겠습니다.”라고 하시고, 또 “보십시오,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.”라고 하셨습니다.
**14** 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,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.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,
**15** 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**16** 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, 아브라함의 씨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.
**17** 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.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,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.
**18** 그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,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.

**7/24 목**

**롬 1:3-4**
**3** 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. 이 아들은,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,
**4** 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.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

**롬 8:3** 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,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

**눅 1:31-32, 35**
**31** 보십시오,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,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.
**32** 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,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,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,
**35** 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. “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,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.

**히 1:5** 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“너는 내 아들이다.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.”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, 또 “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,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.”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?

**7/25 금**

1. **롬 1:3-4**
**3** 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. 이 아들은,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,
**4** 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.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
2. **벧전 3:18** 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,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.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,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.
3. **빌 3:10** 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,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,
4. **엡 1:19-20**
**19** 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
**20** 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,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
5. **7/26 토**
6. **롬 8:29** 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7. **히 2:10-11**
**10** 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,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.
**11** 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,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,
8. **계 21:1-2, 5-7, 10-11**
**1** 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.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,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.
**2** 또 내가 보니,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,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
**5** 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“보아라,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.”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. “기록하여라.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다.”
**6** 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다 이루어졌다.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, 시작과 끝이다.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.
**7** 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.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,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.
**10** 내가 영 안에 있는데,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,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.
**11** 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,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.
9. **7/27 주일**
10. **롬 1:16-17**
**16** 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,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.
**17** 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, 이것은 성경에 “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.”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.
11. **롬 8:18-23, 28-30**
**18** 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.
**19** 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
**20** 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.
**21** 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.
**22** 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.
**23** 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,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.
**28** 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,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.
**29** 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**30** 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,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,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.